

# 정부정책 이해로 전주농업 '도약'

### 농업분야 공무원·출연기관 담당자 워크숍... 농업 경쟁력 강화 위한 대응 전략·실천과제 모색

전주시가 전주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 13일 농촌관광거점마을인 원색장마을 원색마을에서 시 친환경 농업과와 전주농업기술센터, 완산·덕진구청 경제교통과,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등 농업 관련 분야 공무원과 담당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가졌다.

정부 농업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전주시 대응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농업분야 공무원 및 출연기관 담당자 워크숍은 정부의 농업정책에 적극 대응해 전주시 농업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공무원 및 관련기관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전북연구원 황영모 박사의 '정부 농업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전주시 대응 및 발전 방안' △정승일 (재)전주농생명소

재연구원 본부장의 '바이오부터 개발 소개 및 발전전략' △강성욱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의 '2018 전주푸드플랜 추진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전주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명확한 목표 설정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전주 농업의 혁신과 변화의 기를 마련을 위한 질의·응답시간과 전주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토의, 행정과 출연기관 참석자들 간의 소통의 시간도 진행됐다.

시는 이날 워크숍에서 도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정부 농업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고, 나아가 전주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 농업정책과 농민이 상생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경찰, 선거수사상황실 설치

### 금품선거·흑색선전 등 5대 선거범죄 집중단속

전북지방경찰청은 13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61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선거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선거수사상황실에서는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과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 시 불법행위 등에 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 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철저히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수사하며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 실제 범행에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와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

획 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해 후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이날 강인철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의 일꾼을 선발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선거개입, 편파수사 등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 '차별과 편견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날'

### 전주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



전주시와 전주시장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지난 13일 전북도 장애인복지관 체육관에서 전주시 장애인과 가족, 시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전주시와 전주시장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지난 13일 전북도 장애인복지관 체육관에서 전주시 장애인과 가족, 시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가졌다.

'차별과 편견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날'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고 장애인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요와 밸리댄스 등 흥겨운 문화 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복지구현과 봉사활동에 기여한 시민과 유공자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장학금 전달과 축하공연, 장기자랑, 경품추첨 등 다채롭게 펼쳐졌다.

박경노 전주시장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은 이날 "지금은 장애인으로서의 삶이 녹록하지 않지만 모두 함께 노력한다면 진정한 차별과 편견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순종 전주시장 관대행은 축사를 통해 "차별 없는 환경 속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부 문화행사에서는 초청가수 공연과 장애인들의 열띤 노래와

춤 실력을 뽐내는 장기자랑이 진행됐으며, 푸짐한 경품을 추첨해 지급하는 등 흥겨운 이벤트가 펼쳐졌다. /김민근 기자

##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이현웅 예비후보가 민주당 전북도당을 상대로 낸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방승만)는 13일 이 예비후보가 민주당 전북도당을 상대로 낸 '경선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자(신청인)의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3월 2일부터 당내경선 예정일까지 약 한 달 이상의 간격이 있고 당내경선의 선거일은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북도당이 당

헌·당규를 위반해 김승수 예비후보에게만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내경선 절차가 정당의 민주주의 원칙이나 헌법, 정당법 등의 본질을 침해해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 예비후보는 "전북도당의 경선일정대로 경선이 진행될 경우 김승수 현 시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 뻔하며 후보검증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며 "오는 15~16일로 예정된 당내경선을 중지해 달라"며 전주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상민 기자

## '사촌 여동생까지'... 성범죄 40대 추가 들뜸

지적장애 여성을 성추행 해 구속된 40대가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48)씨에 대한 추가 혐의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15년 사촌 여동생 B(23)씨를 불러내 익산시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따라가지 않겠다는 B씨

를 차에 태우고 모텔로 향했다.

A씨의 추가 범행은 뒤늦게 사실을 안 B씨 가족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접수된 고소장과 B씨 진술을 토대로 구속돼 있는 A씨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6년 여름 익산시 한 전통시장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던 지적장애 2급인 여성 C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함께 돌보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는 지난 13일 LH전북지역본부와 효자동 인근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건강증진센터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LH전북지역본부는 전주시보건소가 이동건강증진센터

를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공간도 제공기로 했다.

보건소는 LH전북지역본부가 제공하는 공간에서 기초건강측정과 체성분

분석·상담 등의 이동건강증진센터를 월2회 운영하고, 맞춤형 통합건강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효자동 인근 임대주택은 총 4단지에서 3,142세대 7,404명이 거주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